

나주시 치매안심학교 다음달 개교...70명 입학식

숲체원·동신대와 협업...주 1회 48회 프로그램 운영

나주시가 치매 환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치매 예방 및 증상 완화를 위한 치매안심학교를 개교한다.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립나주숲체원, 동신대학교 산림조경학과, 작업치료학과와의 업무 협약(MOU)을 통해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치매교

위험군 및 경증치매환자 등을 대상으로 치매안심학교를 운영한다. 치매안심학교는 '다시 청춘, 행복한 기억'이라는 주제로 주 1회(총 48회) 나주숲체원에서 치매 극복을 위한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자 70명 개개인 특성에 맞춰 치매예방반, 경도인지장애반, 치매환자반으로 받을 구분했다. 특히 입학식, 졸업식, 운동회, 소풍 등 일반 학교에서 추진하는 참여자들의 자존감 향상과 사회적 활동에 따른 치매 예방과 증상 악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입학식은 3월 5일 열리며 이후 주 1회 3교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1교시는 숲체원 치유프로그램과 점심(휴식)시간, 2교시는 나주시 치매안심센터 및 동신대학교 자체 치유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3교시는 전남도광역치매센터에서 제공하는 인지 예방 및 재활 학습지 교구를 활용한 인지기능 활성화 수업이 진행된다.

4월 소풍, 5월 운동회·음악회·가족 힐링캠프 등 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도 열린다.

강용곤 나주시 보건소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일회성 교육이 아닌 지속적인 인지강화 교육을 통해 치매 진행을 억제하고 참가자들의 사회적 관계 유지를 도모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대상자와 가족이 모두 함께하는 4월 소풍, 5월 운동회, 음악회, 가족힐링캠프 등을 추진해 치매 환자 심신 치유는 물론 환자 가족, 보호자의 돌봄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나주시보건소가 지난 5일 산림자원을 연계한 치매극복 '치매안심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국립나주숲체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나주시 제공>



담양군 보건소 공보의 한의사와 방문보건팀 직원들이 지역 한 마을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담양군 '찾아가는 경로당 한방 순회진료'

방문보건팀 어르신 건강 챙겨

담양군은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한방진료와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경로당 한방 순회진료'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나서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로당 한방 순회진료 사업은 방문보건팀과 공보의 한의사가 경로당을 방문,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담양보건소 공보의 한의사 5명과 방문보건팀은 2월 한 달간 마을 경로당 26개소를 찾아 요통, 관절통, 소화불량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혈압, 혈당 등 기초검진과 침 시술, 질한 관련 기초상담, 건강 관리법 등을 제공한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노년층에 주로 나타날 수 있는 중풍에 대한 예방교육, 치매 조기 검진의 중요성, 치매 예방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찾아가는 한방진료 서비스는 거동 불편으로 한의원 가기 어렵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으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만족도가 높아 지난해 경로당 240개소에서 올해는 250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언제나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속적인 건강프로그램과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겨울철 추운 날에는 관절 통증이 더 심해지고 거동 불편으로 움직임이 둔해져 혈관 건강이 우려된다"며 "적절한 관절운동과 고른 영양분 섭취로 어르신들이 건강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kwangju.co.kr

화순군 '에너지 소외' 한계·동림마을 2곳 LPG 배관망 구축

12월 까지...연료비 30% 절감

화순군이 마을 단위 LPG 배관망을 구축한다. 화순군은 에너지 소외 지역으로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한천면(한계마을)과 동림(동림마을) 2곳을 대상으로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 외곽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마을 공동 LPG 저장 탱크를 설

치하고 공급 배관을 통해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한천면 소재지 권역에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을 포함한 총 2개 마을 114세대에 15억 2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화순군 동면 동림마을이 전남도의 2025년 공모사업인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대상지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2024년에 선정된 한천면 한계마을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한다.

오는 12월 중순까지 LPG 공급을 완료할 예정으

로 이를 통해 도시가스 수준의 LPG 공급을 실현해 지역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화순군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6개 마을, 374세대에 마을 단위 LPG 배관망을 보급한 바 있다.

박용희 화순군 지역경제과장은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도시가스 수준의 안전성과 편리성이 담보된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유류 및 LP가스 대비 상당한 연료비 절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강진 '내돈내산' 후기 인증하고 상품권 받으세요

2월 한달간 SNS 리뷰 이벤트

강진군이 지역내 소상공인 업소 활성화와 홍보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강진군 내돈내산 SNS 리뷰 이벤트'를 제53회 강진 청자축제에 기념해 이달 한달간 특별하게 진행한다. <사진> '강진군 내돈내산 SNS 리뷰 이벤트'는 소비자가 강진군 소상공인 업체 이용 후 SNS에 사진과 영수증을 첨부한 리뷰를 작성하면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을 1건 당 5000원을 지급하는 행사다.

지난 2024년 1년 한 해 동안 1349명이 참여해 총 3150건의 리뷰를 작성하며 지역 소상공인 홍보에 기여했다.

특히 제53회 강진 청자 축제가 개최되는 2월에는 기존 참여 인정 건수를 2건에서 4건으로 확대하고, 청자축제장 방문 후 작성한 리뷰 중 베스트 리뷰 50명을 선정해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 1만원씩을 추가 지급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강진군 소상공인 업체 이용 또는 구매 사진 및 청자 축제 홍보 사진(홍보물·포스터·협수막 등) 촬영 ▲1만원 이상 영수증 사진 촬영 ▲개인 SNS에 필수 해시태그



와 사진들을 함께 게시(전체 공개 및 필수 해시태그 : #강진맛집 #강진소상공인 #강진내돈내산 #강진가볼만한곳 #강진청자축제 #강진상호명) ▲이벤트 참여 신청(네이버폼) 순서로 참여해야 한다.

이벤트 참여 경품은 참여일 기준 다음 달 15일

까지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리뷰 1건 당 5000원씩 최대 4건까지 인정된다.

이벤트 참여시 지역상품권 착(chak) 어플 설치 및 가입이 필요하며, 필수 해시태그 누락이나 개인정보 포함 여부에 유의해야 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장흥군 바이오식품산업

93개 기업 입주 분양률 70%

투자유치 노력 등 성과

장흥군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분양률이 70%를 달성했다.

장흥군에 따르면 민선 8기 이전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분양률은 53%에 그쳤으나, 이후 약 6만 1889㎡를 분양하는 성과를 올려 분양률 70%를 이뤄냈다.

장흥군은 전남도가 주관하는 투자유치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투자유치 부문에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몇 년간 의회화하고 있는 각종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장흥군이 적극적으로 투자유치에 나서면서 신규 투자를 이끌어 낸 결과다.

기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의 신속한 해결 및 효과적인 관리를 통한 추가 증설을 유도한 것도 분양



장흥군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률 향상에 보탬이 됐다. 또 입주한 기업들의 소풍 공간 제공을 위해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했으며, 공공폐수배출시설 요금 감면을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였다. 여기에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등 재추진 하는 등 기업들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는 93개 기업이 입주, 84만3607㎡가 분양됐으며, 이 가운데 운영

중인 기업은 57개 기업, 착공 및 준비 중인 기업은 36개 기업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온 결과 투자유치 부문에서 성과를 거뒀다"며 "임기 내 분양 목표인 80%를 달성하여 인구 증가와 일자리 창출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나주시, 시내버스 시민평가단 24일까지 모집

성인, 중·고생 25명씩 50명 선정

나주시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과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시내버스 서비스 시민평가단'을 모집·운영한다.

시민평가단은 성인 25명, 중·고생 25명 등 총 50명을 선정하며 오는 24일까지 신청서를 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나주시 누리집(www.naju.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나주시 교통행정과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민평가단으로 선정되면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나주교통과 나라교통이 운영하는 63개 노선버스에 승차해 '운행 적정성', '진절 서비스', '시설', '이용 편의성' 등 4개 분야 13개 세부 항목 평가에 참여하게 된다.

나주시는 평가단에게 월 최대 6회까지 실비를 지급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모범 운수종사자를



'나주급행 1번' 직행버스.

선발해 시상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향후 운수업체와 공유해 실효성 있는 대중교통 개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평가단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불편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장성군, 배 재배 45 농가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장성군은 폭염 피해를 입은 배 재배농가에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45개 농가 37.4ha 규모로 1㎡ 당 100원으로 환산해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재배면적 1000㎡ 미만,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폭염일수가 33.1일로 전년보다 3.5배로

늘면서 배 농가의 수확량이 크게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 장성군은 배 재배농가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안정자금을 마련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7월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농업과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함평군, 군민 정신건강증진·삶의 질 향상 박차

전남 마음건강치유센터와 협약

함평군이 군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박차를 가한다.

함평군은 지난 7일 군청에서 전남 마음건강치유센터와 업무협약식을 갖고 양 기관은 함평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공동 협력과 상호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엔 이상의 함평군수와 강형원 전남마음건강치유센터장, 심화섭 함평군보건소장,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했다.

치유센터는 함평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함평군민 마음휴가 힐링캠프' 프로그램을 이달부터 12월까지 12회 운영할 예정이다. 군은 참가비 전액을 지원한다. 치유센터는 장흥군에 위치하고 있다.

힐링캠프는 산후우울증을 겪는 산모, 치매환자 및 정신질환자 가족, 암 환자, 갱년기 여성 등 스트레스에 취약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박 2일 동안 진행되며 1회당 참가자 10명을 모집한다.

참가자는 ▲스트레스검사 ▲불안·우울검사 ▲차분명상 ▲요가 ▲한방치료 ▲냉치료 ▲스포츠마사지 등 기본검진과 상담, 치유프로그램과 통합의학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